


### 공동체 소식



**부활 제4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오늘은 ‘부활 제4주일’ 로 ‘생명주일’ 이며 ‘성소주일’ 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달입니다.

■ **다음 주일은 ‘어머니 날’ 입니다.**

- 애찬봉사 : 아버지들

※모성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에 당신의 사랑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모의 밤’ 미사**

- 일시 : 5/16(화) 저녁 7:30.

■ **소공동체 모임(반 모임)**

- 일시 : 반장님의 주관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장소 : 반장님의 주관으로 하되, 반에 속한 가정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5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5/13(토) 11:30부터.

■ **복미 중남미 지구, ‘남성 제15차 꾸르실로’ 안내**

- 일시 : 2017/5/25(목)-28(주일) 3박4일  
- 장소 : Holy Name Passionist 피정센터, 휴스턴.

■ **‘재무위원’ 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신청은 평협회장님께 합니다.**

■ **교구 신부님들 방문이 있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55	212	174	244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 주	최은미 아네스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차 주	‘어머니 날’, 아버지들 봉사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30일	58명	260달러	1,550달러
정석원, 박동희, 이우석, 김대연, 김화년 (총 5세대)			

부활 제4주일  
(생명주일 · 성소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5월 7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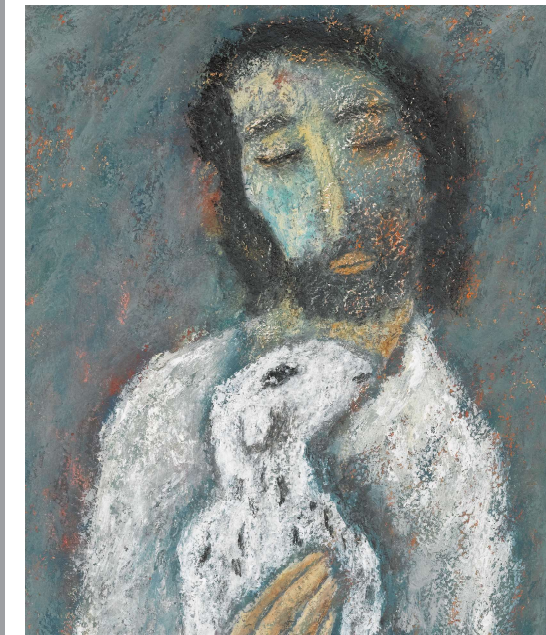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4주일로 생명 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들이 드나드는 구원의 문을 다시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생명의 문화가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 그림 묵상

착한 목자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1)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양 떼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 생명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 양 떼인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4ㄱ.36-41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20ㄴ-25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0  
<나는 양들의 문이다.>



### 예수님 닮은 일꾼 되소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따라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특별히 성소주일을 제정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는 성직자, 수도자, 선교사들의 성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수확할 밭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청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마태 9,37-38) 주님을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없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길러내어 열매를 맺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함께 모여 주님께 성직자와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어 주심사 기도합니다.

성소주일을 맞아 우리는 또한 이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착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도자들은 청빈과 정결과 순명이라는 복음 삼덕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삶으로 증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어떤 일꾼들은 복음의 기쁨을 삶으로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소주일을 맞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니 성소주일은 새로운 일꾼이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날임과 동시에 성소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성소를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은 어떤 이들이 주님의 착한 일꾼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올바른 길, 곧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이끌어 주는 목자들이 진정 착한 일꾼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를 수 있으며, 양들을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착한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데려가며, 예수님을 통해 양들이 구원받고, 풀밭을 찾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곧, 양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줍니다.

여기서 착한 목자가 예수님의 문으로 드나든다는 말은 1·2독서에서 사도행전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청빈하고, 정결하며, 순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착한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양들 역시 그 문으로 드나들도록 한다는 말은 양들도 착한 목자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만나고 증언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또한 착한 목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이들 또한 예수님의 양 때가 아닙니다.

성소주일을 맞아 다시 한 번 목자로서 살아가는 이들, 수도자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에 좀 더 충실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 예수님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착한 목자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기도와 생활로 증언하는 수도자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주님께 도움 청합시다. 성소는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의지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희생으로 태어나는 것임을, 또 우리가 길러 내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성소주일을 맞아 다시 한 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된 일꾼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기도합시다.

- 영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성모님 공경 이유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성당에 오면 성모님 앞에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성인, 순교자 등과 관련하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성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은 가장 큰 성지입니다. ‘성모님의 자궁’도 예수님이 9개월이나 머물렀던 흔적이요, 은총의 장소로서 가장 큰 성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모님 공경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7)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상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에 대한 공경을 구분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흠숭의 예를 흠숭지례(欽崇之禮)라고 합니다.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각별한 공경의 예를 상경지례(上敬之禮),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사랑을 공경지례(恭敬之禮)라고 합니다. 흠숭지례는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만 유일하게 드리는 공경의 예입니다. 인간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고, 신앙의 모범이 되신 성모님께는 특별한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하느님을 증거 한 삶을 살아가신 성인께는 존경을 드리는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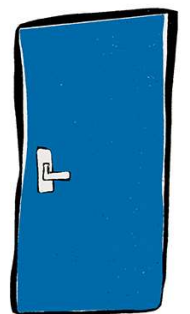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 호칭기도에서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성인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성모송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시며, 성모님만큼 아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한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 다.(루카 2,51 참조)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살아있는 문

문은  
밖이 시작되는 곳이면서  
안이 시작되는 곳  
밖이 끝나는 곳이면서  
안이 끝나는 곳

그러기에  
문은  
시작이며 마침이고  
일상적이며 거룩함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한 10,7)

- 임의준 신부